

李白的 詩에 나타난 孤獨과 달의 이미지

郭 利 夫*

目 次

I. 序 論
II. 本 論
III. 結 論

I. 序 論

李白(701~762) 詩歌에서 孤獨이란 詩語는 단 한마디도 없다. 그러나 그는 '孤'字로는 7個詩句 '孤雲', '孤舟', '孤丹', '孤帆', '孤月', '孤鳳', '孤鳳鶴' 등으로 쓰면서 孤獨感을 드러내고 있으나, 61個 作品 62個 詩句에서 쓰고 있다.”

'孤獨'이라는 말이 하나의 單語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禮記·王制>篇과 <淮南子·時則訓>篇, 그리고 前漢時代의 人物 司馬相如의 <上林賦>에 나타나고 있다.

그 以前에는 <孟子·梁惠王>下에,

늙어서 아내가 없는 것을 鰥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것을 寡라 하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 것을 獨이라 하고, 어려서 아버지가 없는 것을 孤라고 한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곤궁한 사람들이어서 호소할 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老而無妻曰鰥, 老而無夫曰寡, 老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荀子도 <荀子·王霸>에서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을 鰥이라 부르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들을 寡라고 부른다고 하여 “孤獨鰥寡”라는 用例를 사용하고 있다.”

*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Dep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1) 花房英樹 編, 《李白歌詩索引》, 前掲書, pp. 75~76.

2) 斯波六郎 著, 尹壽榮 譯, 《中國文學 속의 孤獨感》, 東文選, 1992, p. 10 參照.

그런데 李白이 蜀에서 幼少年기에 익힌 것은 우선 古典文學이었으니, 뒷날의 그의 回顧에 의하면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子虛賦>를 읽게 하셨다."³⁾고 하였다. <子虛賦>는 李白과 同鄉인 司馬相如의 代表作으로 그는 李白보다 八百年이나 옛날 西漢時代 사람이니 大先輩라고 하겠다. <史記>와 <漢書>의 <司馬相如傳>에는 一篇이었는데, <文選>에서 前半部를 <子虛賦>, 後半部를 <上林賦>로 兩分됐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李白은 그의 <上林賦> 또한 읽었을 것이 틀림없으니 孤獨이라는 用語를 또한 熟知했을 것이라고 推斷할 수 있겠다.

李白은 감수성이 銳敏한 靑少年時期에 蜀(四川) 岷山에서 趙蕤를 師事하였다. 또한 道士들을 찾아다니면서 순진한 청춘의 감상을 孤獨과 哀愁의 心境으로 "만나 뵈 도사님은 간 곳 모르고, 서글피 소나무 두서너 그루 어루만지노라. (無人知所去, 愁倚兩三松)" <訪戴天上帝士不遇>에서 읊었다. 이렇듯 그는 어려서부터 이미 聰明성이 孤獨感과 哀愁感으로 胚胎되었다.

II. 本 論

李白은 일생을 통해 여러곳에서 多種多樣한 對人·交友關係를 맺었지만, 虛心垣懷하게 胸襟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았다. 그는 25歲 때 故鄉을 떠난 후 한 번도 故鄉인 蜀에 가지 못했고 客死했다. 他鄉에서 달을 들끄러미 쳐다보는 人間은 대개가 孤獨한 사람인 것이다. 달과 벗한다는 것은 「無情之遊」일 수 밖에 없다.

<春日獨酌 二首> 其一

東風은 은화한 薰氣를 풍기고
樹木은 봄 별에 무성해진다.
太陽은 푸르른 풀을 비추고
落花는 흩어져 날며 떨어지네.
외로운 구름은 하늘 높이 떠돌고
못 새들도 각기 둥우리 찾는다.
萬物은 모두 다 의탁할 곳 있고
나 홀로 쓸쓸해 의지할 곳 없어라.
돌 위에 비친 달을 대하고
언제나 술에 취해 꽃에 읊으리.

東風扇淑氣
水木榮春暉
白日照綠草
落花散且飛
孤雲遯空山
衆鳥各已歸
彼物皆有託
吾生獨無依
對此石上月
長醉歌芳菲

春風에 온갖 萬物이 다 蘇生하고 싹트고 빛을 내고 꽃이 피어 香氣를 내 뿜는다. 또 行樂의 한 때를 유쾌하게 즐기는데 詩人은 春愁에 孤獨과 虛無를 느낀다. '孤雲'과 '獨無依'로 외로움을 表現했고, 그 愁心은 어째서 생겼고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大自然의 달과 벗하여 어느 때라

3) 李白 <秋于敬亭送從侄崑遊廬山序>: "余小時, 對人令誦<子虛賦>, 私心慕之."

도 술을 마시며 향기나는 꽃을 읊어 孤獨을 忘却하려고 했다. 즉, 世俗을 떠나 自然과 더불어 노니는 風流客 李白의 姿態인데, 그것은 消極的인 頹廢性이 아니고 積極的인 進步性을 行間에 內在시켰다.

〈月夜聽臚子順彈琴〉

明月 뜬 밤에 한가로이 앉아
세상을 등진 이 좋은 거문고 소리 듣노라.
홀연히 悲風調의 曲 들으니
추운 겨울날 술 바람 속삭이는 듯
白雲의 曲 타는 듯 손 빨리 움직여
綠水의 曲 타는 사람 허전한 맘 맑게 하나
鍾子期 이미 죽어 없으니
세상에 거문고 소리 아는 사람 없더라.

閑坐夜明月
幽人彈素琴
忽聞悲風調
宛若寒松吟
白雪亂纖手
綠水清虛心
鍾期久已沒
世上無知音

春秋時代 伯牙는 거문고의 名手였고, 그의 친구 鍾子期는 그 음악을 듣고 평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鍾子期가 죽으니 伯牙는 거문고를 부수고 弦을 끊어 죽을 때까지 거문고에 손을 대지 않았으니 '伯牙絕弦'이라는 故事가 생겼다. 詩人은 이 典故를 引用하여 이 世上에는 자기의 心情을 참으로 알아 줄 만한 親友가 없음을 한탄했고 深夜에 明月을 벗하여 作詩로 孤獨한 懷抱를 풀고 있다.

〈日夕山中忽然有懷〉

오래도록 靑山의 구름 위에 누우니
드디어 靑山의 나그네 되었네.
깊은 山의 구름이 더 모양 좋고
자연을 좋아하며 세월 보냈네.
달은 구름 위에 뻗은 누각과 봉우리 비추고
샘물은 계단의 주춧돌을 씻었네.
평소에 지녔던 마음 여기서 얻어
진실된 意趣 밖에는 애석한 것 없네.
제수나무에도 가을되어 소리 안나고
나무 구멍의 바람 소리 그쳐 조용해졌네
오래 전 洪厓가 배웠다는 仙術을 생각해
가끔 세속 떠나 滄海에 가고 싶어라.
雲車 오는 것이 어찌 이렇게 더딘지

久臥靑山雲
遂爲靑山客
山深雲更好
賞弄終日夕
月衝樓間峯
泉漱階下石
素心自此得
眞趣非外惜
隨啼柱方秋
風滅竊歸寂
緇思洪厓術
欲往滄海隔
雲車來何遲

4) 《呂氏春秋·本味》, 《列子·湯問》, 《說苑·尊賢》 등에 실려 있음.

몸을 어루만지며 장탄식 하네.

撫己空歎息.

靑山은 一般名詞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靑山은 李白이 가장 좋아하는 靑山이니, 곧 安徽 宜城縣의 敬亭山을 말한다. 이 山은 六朝 南齊의 謝朓가 宜城太守로 있을 때 매우 좋아 하었는데 李白은 謝朓의 風雅를 思慕해 그이 처럼 죽으면 이 山에 묻히기를 원할 정도였고 자신의 遺命에 따라 그곳에 묻혔다. 現實世界에서 孤獨을 느낄 때 그 解消策으로 理想世界를 상상함으로써 詩人은 비로소 즐거움을 찾는다. 달은 구름 위에 뾰죽 떨어나온 누각의 끝과 봉우리를 비추는데, 그것은 謝朓와 詩人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春日醉起言志〉

人間의 삶은 긴 꿈을 꾸는 듯
어이타 그 人生을 괴롭히랴?
허구한 날 마시고 또 취해
기둥 앞에 쓰러져 잔다네.
깨어나 뜰 앞을 바라보니
한 마리 새 꽃 속에서 우네.
지금 어느 계절인가 물으니
봄 바람 불고 피꼬리 울더라.
봄의 景色 대하고 탄식하며
술잔 기울여 다시 취한다네.
소리 높여 울고 밝은 달 기다려
노래 끝나니 俗情도 사라지네.

處世若大夢
胡爲勞其生
所以終日醉
頽然臥前楹
覺來盼庭前
一鳥花間鳴
借問此何時
春風語流鶯
感之欲歎息
對酒還自傾
浩歌待明月
曲盡已忘情

한 平生을 긴 꿈으로 본다면 名利를 얻는다는 것도 번거롭고 無意味한 일이고, 現實世界에서 名聲과 利慾을 얻고나서, 그것에 戀戀하지 않고 現實世界로 가겠다는 念願이다. 그것은 詩人의 한결같은 人生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꽃 피고 피꼬리 우는 계절이지만 '一鳥花間鳴'으로 孤獨感을 느껴 痛飲狂歌로 나날을 보내니 허송세월에 心亂해 하는 것이다. 單純하지 않은 世波에 너무 名利에 급급함을 스스로 느껴 春景과 飲酒로 해소하려 해도 如意치 않은 듯하다. 希望과 理想의 象徴인 달을 큰 소리로 외쳐 기다리는 詩人의 외로운 心情을 俗世에서는 풀 길이 없어 理想世界로 그려 본 것이다.

〈月下獨酌 四首〉其一

활짝 핀 꽃 속에 술 단지 놓고
친구도 없이 혼자서 술잔 드네.
술잔 속에 밝은 달 맞이하니

花間一壺酒
獨酌無相親
舉杯邀明月

달과 나와 그림자 셋이 되었네.
달님은 본래 술 못마시고
그림자는 내 몸 따라 다니지만
잠시동안 달과 그림자 동반하고
모름지기 봄철 한 때 즐기고자
내가 노래하면 달은 서성대고
내가 춤추면 그림자 흔들네.
술 깨어서는 함께 어울려 놀고
술 취해서는 각각 흩어져 가네.
영원히 담담한 交遊 맺고자
아득한 銀河에서 다시 만나리.

對影成三人
月既不解飲
影徒隨我身
暫伴月將影
行樂須及春
我歌月裏回
我舞影零亂
醒時同交歡
醉後各分散
永結無情遊
相期遊雲漢

화창한 봄날 밤의 밝은 달은 孤獨한 詩人을 비취 주어 그림자까지 만들어 주니 외로움을 달래 주는 것 같다. 술이 덜 취해서 精氣가 있을 때는 달과 그림자와 詩人이 서로 어울리는 듯 하지만, 술이 취했을 때는 無我陶醉해 자기의 所在마저도 잊어버린다. 李白의 主觀性은 매우 강해 詩歌에서 主觀的인 感情이 客觀的인 景物을 支配하는 突出性을 나타냈다. 李白은 自我意識이 강한 것을 一人稱 手法로 그의 詩에서 半數以上 '我', '吾', '李白', '余', 혹은 '予'字로 表現했으니 모두 다 '我'字로 轉用할 수 있다. '我'는 一切의 主宰者요, 一切의 支配者이니 곧 李白 自身이다. 이것은 杜甫의 詩에도 별로 없고 中國文學史에서도 잘 볼 수 없는 것이다.⁵⁾ 永遠히 자신의 利慾과 好惡의 感情을 버리고 더불어 놀고 싶은데, 現實世界에서는 不可能한 일이다. 그러므로 銀河의 世界에서나 만날 것을 기약하게 된다. 그는 水面이나 거울에 비친 影像으로 孤獨感이나 懷才不遇 等を 읊었지만, 本詩에서는 술잔속의 影像으로 孤獨感을 表出했다. "明月"과 "影"은 無情의 自然物이지만, 思想과 感情을 注入시켜 思想과 感情이 있는 人格體로 人格化 하였으니, 擬人手法의 詩的인 技巧로 有情의 人間은 交際時 感情이 作用하기 마련인 것이다.

冷酷한 現實에서 李白이 世上萬事의 雜多한 번뇌로부터 벗어나 虛想의 世界 즉, 理想의 世界에 가고자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世上에서 술을 마시면서 孤獨과 煩惱를 잠시 잊고 꽃속에서 달를 쳐다 본다는 内心을 詩人은 率直히 表出하였다. 李白의 浪漫主義는 現實에 基礎를 두어 未來의 現實世界를 追求하고 生活意志를 鞏固히 하고 孤獨에서 脫皮하도록 換氣시키고 있다.

〈月下獨酌 西首〉其四

궁핍한 憂愁는 천 갈래 만 갈래
맛있는 술 삼백 잔이나 들게

窮愁千萬端
美酒三百杯

5) 孫功發, 〈詩論李白的憂患意識〉, 《李白研究論叢》第二輯, 四川, 巴蜀書社, 1990, p. 78.

수심은 많은데 술은 적으니
 飲酒로 수심은 일시 사라져
 술이 聖人이란 이유 알겠네.
 술 취하니 마음은 저절로 평온해
 곡식 안 먹고 首陽山에 숨은 伯夷 叔齊
 쌀 뒤주가 텅 비어 배고픈 顏回나
 當代에 술의 歡樂 모르고서
 虛名은 後世에 남겨 무엇하리?
 계, 가재 안주는 神仙의 仙藥
 쌓인 술 저꺼기 蓬萊山 같고
 모름지기 또 美酒나 마시면서
 달과 함께 높은 樓臺에서 취하리.

愁多酒雖少
 酒傾愁不來
 所以知酒聖
 酒酣心自開
 辭粟臥首陽
 屢空飢顏回
 當代不樂飲
 虛名安用哉
 鰕蟹卽金液
 糟丘是蓬萊
 且須飲美酒
 乘月醉高臺

人生行路에는 孤獨과 憂愁는 많지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달과 술 뿐이다. 好時節일 수록 더욱 孤獨感을 느끼는 平凡치 않은 詩人의 內面世界를 달로써 表白시키는 詩的 技巧가 잘 발휘된 詩이다. 名利를 생각하는 것은 行政의이나 理想世界를 想像하는 것은 詩的인 것이니, 그것이 바로 詩人 李白의 心情이다. 그는 '千萬端', '三百杯'로 憂愁의 深刻性을 나타냈고 首陽山에서 氣概를 지켜 굶어 죽은 伯夷와 叔齊의 故事를 引用했다. 또 顏回(字:子淵)⁶⁾의 安貧樂道와 好學도 한낱 虛名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고로 詩人은 月下 飲酒의 즐거움으로 俗塵, 虛名과 神仙을 否定하는 孤獨한 苦悶을 읊었다.

〈對酒〉

권하는 술잔 거절하지 마소
 봄 바람 불어 사람 웃기거늘
 복숭아 오얏나무 舊面識이니
 꽃송이 우리를 향해 피어 있네.
 푸른 나무 사이 사이 띄끄리 울고
 밝은 달 황금 술잔 속에 떠있네
 어제의 紅顏 美少年들
 오늘은 白髮 老人되었네.
 石虎殿엔 가시덤불 자랐고
 姑蘇臺엔 들 사슴 뛰는다.
 옛부터 帝王들의 웅장한 대궐이나

勸君莫拒杯
 春風笑人來
 桃李如舊識
 傾花向我開
 流鶯啼碧樹
 明月窺今壘
 昨日朱顏子
 今日白髮催
 棘生石虎殿
 鹿走姑蘇臺
 自古帝王宅

6) 《論語·先進》“子曰「回也其庶乎，屢空」

《論語·雍也》“子曰「賢者回也！一簞食，一瓢飲，在陋巷，人不堪其憂，回也不改其樂」”

城郭은 흙먼지에 닫혀 있네.
 자네도 술 마시지 않겠더니
 그 누구 不老長生했던가?

城闕閉黃埃
 君若不飲酒
 昔人安在哉

春三月 好時節에 술마셔 즐기는 것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인데, 名利를 追求하는데 급급하여도 짧은 인생을 보상받을 수 없다. 자네마저 권하는 술 마시지 않으니 더욱 孤獨感을 느끼게 되어 혼자서라도 黃金 술잔에 비친 달을 벗어나 孤獨에서 脫出하려고 술을 마시는 것이 詩人의 人生觀인듯한 一面을 내보이고 있다. 그는 感覺世界를 反映하여 孤獨한 人生行路에서 飲酒의 快樂을 永遠한 明月과 더불어 有限한 人生의 賞春을 讚揚한 것이 詩意라고 하겠다.

〈望月有懷〉

맑은 샘물 높이 솟은 소나무 비추고
 몇 천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네.
 차가운 달빛 맑은 물에 흔들려
 물에 비친 月光창문에 비쳐드네.
 이런 광경 대하니 길게 詩만 읊고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 얼마나 깊은지
 安道를 만나러 온 것도 헛수고
 詩 읊는 흥미 다하니 愁心생기네.

清泉噴疎松
 不知幾千古
 寒月搖清波
 流光入窗戶
 對此空長吟
 思君意何深
 無因見安道
 興盡愁人心

清泉에 비친 '疎松'과 '寒月'로서 孤獨感을 나타냈고 水面의 月光이 窓門에 비쳐드는 霧圍氣는 詩興을 자극했다.

放浪客 李白은 자기와 취미와 기호가 같은 親友의 집은 어디라도 찾아 다녔다. 晋代의 戴逵(字: 安道)는 博學多識하고 文章과 書畫를 좋아했고 거문고도 名手였던 사람이다. 그래서 "王子猷가 雪夜에 戴安道를 訪問하다"라 하고 있으니 詩人은 當代의 戴安道와 같은 親友를 방문하러 갔는데, 그는 不在中이어서 그 宅에 留宿하면서 겨울의 月夜에 孤獨感을 詩로 噴出하였다. 간접적으로는 哀愁와 孤獨을 잊게 하지만 궁극적인 解決策은 못되었다.

〈聞王昌齡左遷龍標遙有此寄〉

버들꽃 다 떨어져 두견새 울 때
 좌천된 龍標 길에 五溪 지났다지
 나의 愁心을 밝은 달에 붙이고
 바람따라 바로 夜郎 서쪽 보내리.

楊花落盡子規啼
 聞道龍標過五溪
 我寄愁心與明月
 隨風直到夜郎西

7) 王琦, 《李太白全集》"王子猷雪夜訪戴安道." 北京, 中華書局, 1990. p. 1084.

盛唐 詩壇의 七言絶句의 名手는 王之涣, 王維, 王昌齡, 李白, 高適, 岑參 等이다. 七言絶句의 創作上 李白과 王昌齡이 特출해 王·李로 竝稱된다.

‘楊花落盡’으로 楊貴妃 一族의 没落을 四川의 留鳥인 ‘子規啼’로 玄宗이 四川에 蒙塵했던 歷史的인 事實을 서술했다.

李白은 王昌齡이 늦은 봄에 龍標縣⁸⁾의 縣尉로 좌천되어 가는 도중에 벌써 五溪⁹⁾를 지났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龍標縣은 지금의 湖南 黔中道에 있는데, 當時에는 未開·野蠻地區였고, 五溪는 後漢 光武帝 때 馬援이 討伐한 蠻地의 五個 溪谷인데 후에 그 계곡이 地名이 된 것이다. 李白은 王昌齡에 대한 同情心에서 자기의 서글픈 心情을 달에나 의탁해 보내고자 하였으며, 李白 또한 夜郎으로 流配가는 신세였으니 同病相憐이라 하겠다. 이 詩는 乾元 元年(758)에 李白이 流配가는 途中 아무도 武漢 三鎮을 지났을 무렵에 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¹⁰⁾

〈寄王漢陽〉

南湖의 가을달은 새하얗고
王縣令이 밤에 나를 초대했네.
비단 옷 입은 郎官도 취했고
예쁜 옷 걸친 舞姬가 아양떠네.
피리 소리 漢陽·武昌에 터졌고
노래가락 하늘 위까지 울리더라.
이별 후에 공연히 나를 슬프게 해
강물 저쪽 친구의 호의를 생각한다.

南湖秋月白
王宰夜相邀
錦帳郎官醉
羅衣舞女嬌
笛聲喧沔鄂
歌曲上雲霄
別後空愁我
相思—水遙

李白이 乾元 元年(758)에 夜郎으로 向해 押送되는 途中에 지은 작품이라 추측된다. 그가 夜郎 流配地로 가까워질수록 憂愁와 恐怖感이 掩襲했고 武漢 三鎮에서 잠시 滯留했을 때 作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¹¹⁾

첫구의 ‘秋月白’으로 李白도 秋月처럼 潔白한데 억울하게 肅宗 李亨과 永王 李璣과의 兄弟之間의 싸움에 犧牲物이 되어서 流配가는 것을 悲憤慷慨하고 있는 듯 하다. 武漢 三鎮의 地方長官들도 詩人을 위해서 살짝 酒宴을 베풀어 주었는데 ‘舞女’, ‘笛聲’, ‘歌曲’ 모두가 자신의 억울한 罪科를 변호해주는 듯 순간이나마 憂心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유쾌한 기분도 잠시 그들과 이별하고 夜郎으로 향하니 더욱 孤獨感과 悲哀感이 솟구치는 것을 그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8) 《唐書·地理志》：“黔中道，敘州潭陽郡有龍標縣。”

9) 大島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東京, 早稻田大學 出版部, 1981. “雄溪, 漫溪, 西溪, 吳溪, 辰溪.” p. 956

10) 大島實之助, 上掲書, pp. 956~957

11) 大島實之助, 上掲書, p. 958.

〈把酒問月〉

故人買酒令予問之.

푸른 하늘엔 언제부터 달 있었는지
 난 잠시 술잔 놓고 한 마디 물졌네.
 사람들은 明月에 오르지 못하지만
 달빛은 사람을 어디든 쫓아가네.
 맑고 밝아 날으는 거울인 양 仙宮에 있고
 밤 안개 없어지니 더욱 빛나네.
 간 밤 바다 위로 떠오른 그대 보았건만
 날 밝자 구름 속에 묻혀 간 곳 몰라라.
 흰 토끼 봄 가을에 약 절구 쟁고
 嫦娥는 벗할 님 아무도 없대네.
 지금 사람 옛날의 달 못 보았으나
 오늘 달은 옛 사람 다 보았으리.
 古人 今人 흐르는 물과 같은데
 모두가 본 明月은 이와 같아라.
 오직 바라나니 노래하며 술을 대할 때
 달빛이 황금 술잔 속을 오래도록 비치기를.

青天有月來幾時
 我今停杯一問之
 人攀明月不可得
 月行却與人相隨
 皎如飛鏡臨丹闕
 綠烟滅盡清輝發
 但見宵從海上來
 寧知曉向雲間沒
 白兔搗藥秋復春
 嫦娥孤棲與誰隣
 今人不見古時月
 今月曾經照古人
 古人今人若流水
 共看明月皆如此
 唯願當歌對酒時
 月光長照金樽裏

이 詩는 作者가 親友 賈淳의 要請에 의해서 쓴 것이라고 題下에 原註를 달고 있다. 詩人은 前半部에서 自身の 胸中の 政治的 雄心을 吐露했지만 後半部에서 孤獨感과 人生無常의 消極的인 一面을 내보이고 있다. 廣大無邊의 雄心과 虛脫한 孤獨感의 落差는 컸기에 永遠히 변치 않은 달을 擬人化하여 외쳐 묻고 있는 것이다. 神話 傳說 “嫦娥孤栖”를 씌으로써 孤獨과 人生無常을 부각시켰다. 이 詩는 우연히 붓을 잡고 一筆揮之한 것인데, 後世에 큰 영향을 주었으니 宋代 蘇東坡의 名作 〈水調歌頭·明月幾時有〉詞는 곧 이 詩에서 영향받은 것이다.¹²⁾

〈贈王判官時余歸隱居廬山屏風疊〉

전에 黃鶴樓에서 헤어진 이후
 서로 아득한 淮水, 바다의 가을
 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각각 洞庭湖에 흐르는 신세로다.
 중년에 서로 아쉽게 헤어진 채
 吳·越 땅 방랑하며 한탄했도다.

昔別黃鶴樓
 蹉砣淮海秋
 俱飄零落葉
 各散洞庭流
 中年不相見
 踰躑遊吳越

12) 仇仲謙 外 三人 選注 《詠月詩選》, 廣西人民出版社, 1988, p. 115.

옛 風雅人과 견줄 만 하네.
 넓은 이마의 눈은 앞을 못 보고
 白雪 멀리 자네의 용모 아름다움 보네.
 人間世上을 나는 하직하고서
 그대와 손잡고 赤松子를 방문하리.

可與古人比
 清揚杳莫覩
 白雲空望美
 待我辭人間
 携手訪松子

本詩는 開元 14年(726)의 作으로 靑少年 時期부터 道家와 神仙思想에 陶醉된 一面을 보이고 있다.

吳氏라는 사람이 老莊學에 心醉해 山에서 살며 그 道를 터득했기에 山人이라고 했다. 吳山人이란 사람은 現實 世界에서 적용하여 살 수 있는 凡人은 아니다. 사람마다 世俗에서 名利를 追求하기에 급급한데 그는 “弄月溪”하며 일생을 大都市에 한 번 나가본 적 없이 오직 淮水에 비친 月影의 아름다움만을 감상하며 지냈다. 李白도 그와 같은 神仙思想에 젖어 손잡고 仙人赤松子를 방문하여 神仙世界에 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心底에는 出世的인 要素가 많아 現實에서 如意치 못해 孤獨한 存在이지만 百折不屈의 精神으로 달성한 연후에라야 神仙世界에 가겠다는 詩意이다.

〈古郎月行〉

나는 어려서 달을 몰랐기에
 흰 구슬 쟁반이라고 불렀소.
 또 구슬 박은 鏡臺도 있는지
 흰 구름 높이 걸려 나는 줄 알았소.
 仙人이 두 다리를 늘어 뜨리고
 계수나무는 둥둥둥글 원을 지었지
 흰 토끼가 약 빵아 놓은 것은
 뉘에게 먹일 것인지 묻고 싶었소.
 두꺼비가 둥근 빛을 먹어 버려
 밝은 밤이 벌써 없어져 버리겠지
 예가 활로 아홉마리 까마귀 떨어 뜨려
 하늘과 사람 밝음과 안녕을 회복했소.
 달은 精氣를 잃고 빛을 잃어
 가고 또 가도 잘 볼 수 없었네
 걱정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는지
 가없고 슬픈 마음은 간장을 녹이네.

小時不識月
 呼作白玉盤
 又疑瑤臺鏡
 飛在白雲端
 仙人垂兩足
 桂樹作團圓
 白兔搗藥成
 問言與誰餐
 蟾蜍蝕圓影
 大明夜已殘
 羿昔落九鳥
 天人清且安
 陰精此淪惑
 去去不足觀
 憂來其如何
 懷槍摧心肝

天寶 12年(753)의 작품으로, 詩人은 前半部에서 달에 대한 少年時期의 素朴한 認識과 傳說을 서술했다. 後半部에서는 時事性에 대한 感懷를 읊었으니, 皇帝를 昏迷케 하고 權力을 恣용하려

는 女性이 있어서 世上이 混亂에 빠질 前兆가 있다는 것을 諷刺했다. 즉 安祿山의 反亂을 미리 예상하고, 그 原因은 楊貴妃 一派와 그 家族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本 作品은 北·興 技法을 사용했고, 作品解析에 있어서 假相과 實相이 混在된 詩라고 하겠다. 詩人은 달의 이미지로 개인의 孤獨보다는 世上의 混濁에서 오는 危機感을 느낀 것이지만 이에 대한 妙策이 없어 “悽愴摧心肝”으로 끝을 맺었던 것이다. 李白은 蜀에서의 달을 識別할 줄 몰랐던 天真無垢함과 非凡性으로 出蜀하여 周遊千下하는 風月客이 되었다. 그러나 蜀에서 보던 달의 精氣와 精靈은 찾아 볼 수 없고 自身の 出仕에 길이 안 보이고 또한 國運도 기울고 있음을 감지해 孤獨感은 더더욱 깊어졌다. 그것을 出蜀時에 周邊에서 목도한 斷腸의 슬픔을 재음미하고 있다.

Ⅲ. 結 論

李白 詩의 內容은 극히 多樣하고 激烈한 感情과 氣象天外한 想像力을 縱橫無盡으로 表現해 내었다. 그는 平凡하고 日常的인 것보다는 雄壯하고 幼想的인 素材로 作詩했으니 그의 天才性은 現實主義보다는 浪漫主義에 더 합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의 多樣성은 現實生活에서 見聞한 바를 통해서 ‘經邦濟世’를 이룩하려고 노력했으니 出蜀도 그러한 理由에서 한 것이지 자신의 富貴榮達과 肥己之慾을 위해서는 결코 아니다.

李白은 盛唐時期인 玄宗의 開元·天寶(713~756)年間과 安史의 亂(755~763)을 몸소 겪으면서 “開元之治”의 繁榮에도 孤獨感이 있었고 洛陽과 長安이 함락되는 破局을 체험하면서 농후한 孤獨感을 느꼈다. 蜀에서 靑少年時期에 學習에 沒頭하면서 풍부한 感受性을 가졌으니, 그가 十代 때 양친 곁을 떠나 남다른 학업에 의한 早熟性이라 하겠다.

이백의 달에 대한 孤獨感의 表出과 초세탈속적인 도가사상도 蜀의 주위환경에 의해 자연히 몸 에 배인 것이다.

李白은 주유천하하며 교과서적인 학업에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이 혼합하면서 인간상의 변모와 시풍도 호방, 표일하여 盛唐詩壇의 신경계를 이뤘다. 또한 자신의 애매모호한 求仕에 청신한 달을 보면서 고독감을 느껴 음주와 작시를 하였고 사회적 모순과 비리를 달에 의탁해 외쳤다. 그는 덕치로 선량한 인간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했지만, 그것은 나약한 이백의 소박한 이상에 불과했고 불우함만을 느꼈다.

〈代美人愁鏡 二首〉其一

번쩍번쩍 빛나는 金鵲鏡
玉臺 앞에서 더 반짝이네.
뒹고 훑쳐 氷月에 어딘 듯
밝은 광채 달처럼 밝고 둥글다.
홍안은 어제보다 더욱 늙었고

明明金鵲鏡
了了玉台前
拂拭交氷月
光輝何清圓
紅顏老昨日

백발은 어제보다 더더욱 늘었네
서로 다 분가루 닳으로 시들어
맞대로 처연히 탄식만 하네

白髮多去年
鉛粉坐相誤
照來空悽然

詩人은 美人과 거울 뿐만 아니라 자신도 人生無常과 虛無主義에 빠진것을 感知해 “水月”로서 淒涼한 신세를 탄식하고 있다.

李白은 古典文學과 民間文學을 섭렵하는 동안 政治的으로는 落伍者이지만 文學에서는 우등생인 鬱憤의 詩人 屈原을 欽慕였으니, 그의 <離騷> “우수에 쌓여 나는 失意에 휩싸여 나 홀로 이 세상 슬프고 괴로와, 차라리 훌쩍 죽어 없어질지언정 나는 차마 짓은 할 수 없다네. 惇鬱邑余侘兮, 吾獨窮困乎此時也. 寧溘死以流亡兮, 余不忽爲此態也.”의 情調를 재음미하였다. 또한 出仕와 隱退의 葛藤과 矛盾 속에서 自然에 歸依한 田園詩人 陶淵明으로부터 李白은 吟味到達했고 永遠無窮한 달의 이미지로 孤獨性을 특유한 필치로 作詩함으로서 憂愁에 찬 虛無主義의 自身을 克己한 生涯의 一面을 表現했다.

Summary

Image of Solitude and the Moon in Lee Bo's Poetry

Ih-Boo Kwak

Lee Bo(701-762) expressed solitary mind and supplied one with the readers in his poems, though he didn't put the word of 'solitude' at all. This means that his thought, which was formed during his youth, was full of loneliness and sorrow.

He revealed various and violent passion and allowed the geneous imagination its full play. He was considered to be not a realist but a romantist, in that he composed poems with the gigantic and fantastic things, not with the common things. He tried to go to the royal politics and serve the common people. The circumstances that surrounded him from his youth made him keep Toist thought. He combined his learning of work with the experiences from his life in his major poems.

Both the change of his thought of life and broad-mind of poetry composing are also discovered in his poems. This shows his poems to make a new development in the history of Tang's poetry. Looking up the Moon, he felt lonely and began to drink and compose poems. By this, he tried to solve the social discrepancy and absurdity comparing them to the Moon. As well, he, who realized the uncertainty of life and nihilism, was dependant upon the Moon in deploring his own grief.

Even if Lee Baik failed to politics he looked up to a poet of anger Que Yuen and then managed to succeed in literature. Facing conflict and absurdity between entering public life and retirement from public life, he followed Dua Yien Ming, a pastoral poet, and by writing the loneliness of the Moon, he recovered from nihilism for himself. In truth, he was more lonely that he died in a foreign country.